

DMZ “함께가자 백두산까지”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의 땅이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때만 해도 남과 북이 분단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나였던 남과 북이 헤어지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학교에서는 북과 남이 휴전중이다 라고 배우는데 전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원래 하나였던 땅인데 지금 같은 민족이 헤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는 점점 휴전상태를 원래의 상태인 것처럼 받아드리며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던 이 시기에 학교에서 주최한 DMZ 평화의 길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침일찍 일어나 오랜시간 버스를 타고철원에 도착하여 노동당사를 보고 국경선 통일학교에 가서 평화통일 강의를 들었다. 북한이 부족한 것은 남한에서 채워주고 남한이 부족한 것은 북한이 채워줘야 한다고 하셨다. 강사님의 강의는 오는 줄음을 참고서라도 꼭 들어야 할 아주 뜻 깊은 강의였다. 하지만 행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강사님의 강의만을 들으니 마음에 와닿긴 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뒤로 많은 체험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소이산이다.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서서 경치가 아주 멋졌다. 한눈에 보이는 DMZ와 북한땅이 정말 아름다웠다. 혹여나 북한군인들이 봐주지 않을까 하고 내 몸보다 큰 통일 한반도 국기를 엄청 크게 흔들었다. 소이산을 내려가기 전에 다같이 구호를 외쳤었는데 “함께가자 백두산까지” 라는 구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구호를 외치고 나서 무언가 마음이 찡 하게 울렸던 것 같다. 빨리 통일이 돼서 다같이 백두산을 오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오늘 체험을 마치고 통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해볼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속히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은 오늘부터 천천히 생각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로 사행시를 지어 보았다.

남 남쪽의 남한 남조선

북 북쪽의 북조선 북한 하나되는

통 통일 어서 빨리 제각각의 이름이 아니라

일 (하나)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2108 박지은